

울주군 "신암·나사항, 100억 들여 낙후된 인프라 개선"

등록 2026.03.26 16:03:35



[울산=뉴스시스] 울산 울주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와 함께 서생면 신암항과 나사항 일대 '어촌뉴딜 3.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울주군 제공) 2026.03.2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스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와 함께 서생면 신암항과 나사항 일대 '어촌뉴딜 3.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 사업은 어촌지역의 경제·생활 플랫폼 활성화와 낙후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어촌의 활력을 높여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지난해 11월 서생면 신암항과 나사항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울주군은 이번 사업으로 신암항과 나사항의 낙후된 어항 기반시설과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업인 소득 다각화 방안을 마련해 머물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정비 분야의 전문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어 사업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인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기본계획 수립·자문·심의 ▲기본계획 고시 ▲소프트웨어(S/W)사업 추진 ▲시행계획 고시 ▲시공 후 준공 정산 순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최대 100억원이며 향후 기본계획 승인 시 최종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